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톨스토이의 생각, 나그네 인생

큰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우물 밑바닥에 내려갈 수도 없고, 우물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나그네는 우물 안의 돌 틈에서 자라난 조그만 관목(灌木) 가지에 매달린다. 우물 내외(内外)에는 자기를 기다리는 적(敵)이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나뭇가지에 매달려 나무를 쳐다보니, 검은 쥐와 흰쥐 두 마리가 나뭇가지를 쫓고 있었다.

그러니 두 손은 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結局)은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그네는 우물 밑에 있는 큰 뱀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위(周圍)를 돌아보고 그 나뭇잎 끝에 흐르고 있는 몇 방울의 꿀을 발견하자, 이것을 혀로 핥아먹는다. 인간이 산다는 것이 꼭 이 모양이다 라고 비유했다. 여기에서 '나그네 인생'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기막힌 운명(運命)에 처한 것이다.

여기 검은 쥐 흰쥐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사는 '밤과 낮인 시간'을 의미(意味)한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한 70~80년 밤과 낮, 검은 쥐 흰쥐가 드나들 듯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마침내 매달렸던 가지는 부러지고 인생은 끝이 난다는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事緣)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다. 톨스토이는 우리 인생을 향해 이렇게 도전(挑戰)하고 있다. "지금 아주 맛

있는 꿀을 들고 계십니까? 그 꿀은 '젊은 날의 향기(香氣)와 인생의 성공(成功)으로 인한 '부(富)와 권력(權力)' 혹은 '행복(幸福)한 가정(家庭)'일 수도 있습니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 번쩍이는 새 차(車)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은 쥐 흰쥐 그리고 고개를 쳐든 독사(毒蛇)를 기억(記憶)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과거(過去)와 현재(現在) 미래(未來)의 연장선(延長線)에서 살고 있으며, 과거는 돌아갈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나의 미래는 먼저 간 사람을 보면 인생의 죽음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미래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나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삶을 연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뭇잎의 꿀을 핥고 있는 나그네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나그네가 우물 밖으로 나갈 수 없음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음이고, 검은 쥐와 흰쥐 때문에 우물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면(免)할 수 없는 미래의 전개될 현실이다. 다만,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태어날 때 두 주먹을 쥐고 울며 태어나지만, 주변 사람들은 웃으며 축하하고 손뼉을 친다. 그러나 인생의 종말(終末)인 죽음에서는 두 손을 펴고 빈손으로 웃고 가지만,

주변 사람들은 슬퍼하며 애도(哀悼)한다. 태어날 때는 울고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웃으면서 간다는 말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는데 출생이고 죽음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사는 '나그네 인생'은 검은 쥐와 흰쥐가 쫓고 있는 나무가 언젠가는 부러지면 종말인 죽음이 있음을 알면서도 현실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共通點)은 나그네 인생은 죽으면 흙으로부터 온 육신(肉身)은 다시 흙으로 가고 하늘로부터 온 영혼(靈魂)은 다시 본향(本鄉)인 천국(天國)으로 간다고 믿으며, 내세는 천당(天堂)과 지옥(地獄)이 있는데, 인생 나그네는 선(善)을 행(行)하며 산 인생은 천당으로 가고, 죄(罪)를 범(犯)하고 산 인생은 지옥으로 간다고 믿는다. 따라서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은 영원한 내세의 준비를 위해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인생은 태어날 때 가진 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고, 초년(初年)의 삶은 '가진 자가 되려는 준비단계로 공부하는 단계며, 중년(中年)은 '직업을 가지고 가진 자가 되려고 일하는' 단계며, 말년(末年)인 노년(老年)은 '가진 것을 베풀면서 인생을 정리(整理)'하는 단계다. 노년의 나그네 인생은 '가진 것을 보람있게 베푸는 삶'으로 살았으면 한

인생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말하는데, 내세(來世)를 믿는 종교계에서는 '인생은 잠시(暫時) 살다 가는 나그네'라고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종점(終點)이 가까워진 노년기(老年期)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앞으로 어떻게 변(變)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의문(疑問)을 품게 된다.

톨스토이의 '참회록(懺悔錄)'에는 아주 유명(有名)한 다음과 같은 우화(寓話)가 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曠野)를 지나다가 사자(獅子)가 덩벼들기에, 이것을 피하려고 물 없는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우물 속에는 큰 뱀이

독자기고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박광운 단양119안전센터 센터장

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본적인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하는 소중한 소방시설로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사실을 경보음으로 알려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이 한시라도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방시설이다.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일반주택 화재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해 화재 사실을 조기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보다 위협적이고 위험한 부분이 연기와 유독가스다. 화재 시 사망원인의 대부분은 조기에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유독가스가 공장이나 위험물 제조소 등의 화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물건에서도 연소 시 상당한 유독가스가 배출된다는 것이다.

이들 가스의 독성은 매우 강해서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의 의식을 잃게 하고 동시에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연기와 유독가스가 위험한 이유는 연기 때문에 눈을 뜨기가 어려워 시야 확보가 안 돼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주택화재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택화재 예방의 가장 쉬운 길이 있다.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

재는 얼마나 빨리 알아채느냐가 관건인데 화재감지기가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인 화재감지기는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설치하게 되는데, 이미 지어진 기존 일반 주택의 경우 소방정기배선 공사를 별도 시공해야 하므로 큰 비용이 든다.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단독경보형 감지기다.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 알려주는 장치로 화재를 감지하면 곧바로 경보음이 울려 불이 난 사실을 알리기 때문에 화재 초기 대응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대형마트 등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면 되고,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방마다 설치하면 된다. 설치도 어렵지 않다. 감지기는 천장에 나사만 박으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 국민이 우리 집의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하루 빨리 설치해 집안 곳곳의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자성어가 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뜻으로,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한다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당부드린다.

함내라 광주시민, 함내라 광주경제

마크 외출자재 손씻기

생활속 거리두기, 코로나19를 이깁니다

2m+

건강저널신문 | 건강저널신문 | 건강저널신문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2234 광주광역시 풍영로 101번안길 19-2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편집인 전광선 광고 (062)227-0000 구독료 월 10,000원

편집국장 윤규진 등록번호 광주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주필 정기연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만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시잎송편 백합 영광 굴비 영광 꽃게 영광 딸기 천일염

만나서 영광입니다!

밥도둑으로 유명한 영광굴비부터 바다와 해풍이 만나 탄생한 천일염까지!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